

비커밍 비건 (Becoming Vegan)

김은숙 | 지역사회정책연구소 [오늘] 소장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한다. 부모가 되면 큰 책임이 따른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큼 막중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모든 부모는 처음이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 부모가 된 나와 남편도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을 떠올려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기대하며 묵묵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공부해서 남 주라 카나. 니 잘 살라고 하지' 어른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나에게 세 명의 중등교육의 자녀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 출세를 위한 공부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책과 체험을 통해 인문고전과 문화예술을 접하고, 삶의 지혜를 깨닫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의 가치를 우선한 해결책을 위해 사유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고전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작년 봄, 아이들은 학교에서 2주 동안 제주도로 탐방을 갔다. 그곳에서 생명, 환경, 평화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지구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 비건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식구 모두 비건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역시 대안학교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비건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조금씩 달랐다. 막내는 제주도 탐방 동안 만났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몇 편의 다큐멘터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고통 속에 자라고, 물고기들도 잡고 나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어업활동에서 마구 버려지는 어구들이 해양생명체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물살이를 물고기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둘째는 우리가 먹고 있는 육식이 지구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기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건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육식이 주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알게 된다면, 인간이라면, 비건을 선택하지 않겠냐고 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파고들었다.